

##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30, 2부

### 열왕기하 24-25장 2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601년에 바빌로니아인들은 이집트 국경에서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자신이 기회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들이 매년 요구하는 막대한 조공을 의심할 바 없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흥미롭게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멸하려고 바벨론 사람과 아람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침략자들을 보내어 그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물러났지만 그 사이에 느슨해진 군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군벌들은 1년여 동안 시골을 마구 날뛰고 있고, 예루살렘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마도 599년경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자 중 한 사람은 이집트가 그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투에서 회복할 힘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은 전투에서 패했지만 회복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야김은 자신이 잘못된 말을 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599년쯤에 바빌로니아 군대가 돌아와서 그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자, 저는 그가 605년에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인질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너는 네 언약을 지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데려간 이 백성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리라

다행히도 다니엘과 세 사람은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고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98년에 여호야김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라는 두 이름을 혼동하기는 쉽습니다.

여호야긴은 그 아들인데 이때 항복의 지혜를 보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와 왕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갔고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약 27~28세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신권을 준비해 왔지만 이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성지에서 더러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삶도 끝났습니다.

그가 제사장 활동을 시작한 30세가 되던 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호야긴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주목하라. 12절, 바벨론 왕 제8년에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사로잡았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 전체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4절에 보면 장교들과 용사들과 기능공과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끌려갔나요? 그들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는 바벨론에서도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면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의 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내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남겨두나요? 좋아요.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다시는 황무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누군가는 뒤에 남겨져야 합니다.

바벨론에 조공으로 팔기 위해 곡물을 재배하려면 뒤에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훌륭하게 조정된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라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남겨졌습니다.

이제 여호야긴이 받는 치료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12년 후 시드기야에게 일어난 일과 함께 유배되었습니다. 2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운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여호야긴보다 훨씬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를 왕좌에 앉혔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그는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은 후 여호야긴의 삼촌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바벨론의 종으로 삼아 왕좌에 앉혔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이 반역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독수리의 수수께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방금 매우 복잡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는 왕실의 일원과 조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하여 반역하는 일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의 조약을 지킴으로써만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곧 이스라엘 왕족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하여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 대군과 많은 말을 요청하니라.

이스라엘이 맹세를 어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언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맹세한 언약을 어기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왕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가 그를 세웠으나 그 조약을 무시하고 깨뜨린 왕의 땅 바벨론에서 죽으리라.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네가 살고 싶으면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의 멍에를 메라.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왜 죽음을 고집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바벨론의 왕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내리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택하랴? 바벨론 왕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당신과 이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언약이든 아니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왕좌에 올려주시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들어보니 사람들은 더 이상 바빌로니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약을 깨뜨리고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언약을 어기고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약은 하나님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과 충성 계약을 맺은 적이 없지만 시드기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비극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추측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2419.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것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형을 모델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생이 형을 따라가는 모습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큰형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과의 직접적인 일상 접촉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제와의 접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그들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다시, 누가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글썄,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눈 속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내 뒤에는 대략 6살인가 7살쯤 됐던 앤드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빠, 좀 더 짧게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 서서 말했다. 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나요? 가끔씩 나는 "오, 당신은 몇 년 전에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죠"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 하느님,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다쳤거나 길을 잃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따라오고 있나요? 예? 여호야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예. 예.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말을 듣든 듣지 않든,  
시드기야는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를  
따르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을 따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요점입니다. 우리는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미국의 종교 활동은 쉽고, 단순하고, 편리한 세  
단어로 정의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길은 좁고 가파르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자. 계속 지켜보자. 자, 제 생각에 시드기야의 성격이 조금  
희미해지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9일에는 이것이 25장 3절입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었더라. 그 도시가 주변에 공성군을 두고 2년 반 동안 버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음식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쓰러졌고 아무것도 없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지매 온 군대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 문으로 도망하매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들은 요단강이 흐르는 골짜기인 아라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았습니다. 그의  
군사들은 모두 그에게서 떨어져 흩어졌고,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사건은 시드기야의 성격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정확해요,  
정확해요.

자신이 이끈 사람들, 이 혼란을 초래한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에 서  
있기보다는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의 현실성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벨론 군대가 그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밤에도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와 아마도 나는 그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 현실과 별로 접촉하지 않는 비겁한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그들은 교훈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충성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요?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심을 키우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CS Lewis의 원래 생각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인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권위 때문에 자연이 그들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자연도 그들에게 복종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깨뜨렸을 때, 자연도 우리에게 대한 복종을 깨뜨렸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나는 이것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말했듯이 가을이 오기 전에 그들은 언제 자고 언제 먹을지 결정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언제 먹을 것인지, 언제 자는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작은 삽화에서 우리는 시드기야와 그의 리더십에 대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